



나주 농·특산물로 만든 '리얼 배빵' '딸기 한상' '밤호박 하드롤' (왼쪽부터). <나주시 제공>

나주 농특산물의 특별한 변신

농업인·시민 디저트 개발 교육 '리얼 배빵'·'딸기 한상' 등 탄생 농산물 가공 창업 이론·실습도

이번 교육을 통해 나주배와 딸기, 쌀가루 등 농산물은 모든 연령층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후식)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교육에는 식·음료 사업장 관계자와 농업인, 시민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디저트 개발에 노력한다. 나주 농·특산물은 '리얼 배빵' '딸기 한상' '초당옥수수 브리오슈' '배말랭이 모카빵' 등으로 탈바꿈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가공 기술의 원리부터 농산물 가공 창업에 대한 이론·실습 교육을 받는다.

실습 과정에서는 작습·추출·건조·포장 방법과

지역 농특산물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조리법을 알려주고 있다. 교육에 참가한 농업인 가운데는 식·음료 사업장이나 제빵·제과점 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커피 전문점 운영자들이 잼, 과일 음료, 건조 농산물 등 디저트 가공 원료를 나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의뢰·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디저트 생산 역량 강화는 물론,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나주시가 농업인·소상공인·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교육을 펼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3월27일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나주 농특산물 디저트 개발 교육'을 진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마량놀토수산물시장 개장식이 열린 가운데 넘쳐나는 인파들로 마량향이 하루 종일 불볏다. <강진군 제공>

강진 마량놀토수산물시장 개장날 7000여명 찾아...올해도 대박 예고

마량향 판매부스 29곳 복직

강진군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개장하면서 마량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개장일에 7000여명이 방문하면서 올 해도 대박 행진을 예고했다.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2015년 개장 이후 2023년까지 105만명 이상이 다녀가며 총매출 1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놀토시장 행사기간 중 운영 및 판매부스는 5종 29

곳이다.

횃집 등 음식점(4), 수산물코너(7), 건어물 판매장(2), 길거리음식(6), 할머니장터(10)에서 싱싱한 수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로 가득찬다.

군은 체형, 외상, 포즈 등 다양한 요소를 변경해 멋진 프로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포토 부스와 공중 부양 포토존을 새롭게 선보이고 LED바다분수와 미디어 파사드 설치로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했다.

토요일악회도 댄스공연, 퓨전국악, 마술쇼 및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관광객 노래자랑을 통해 방문객들이 숨겨진 재능과 기

를 표현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즐길 거리를 확대했다.

마량면 미방로 중앙파제 내에서 운영되는 마량향놀토수산물시장은 최고 신선, 최고 품질, 최고 저렴한 3최(最)와 외국인, 비브리오, 바가지요금 없는 3무(無)의 운영전략을 고수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외부 관광객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올해는 강진만값 가족여행을 통해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을 그 어느 해보다 가성비 높게 즐기실 수 있다"며 "금요일은 병영 불금불파에서, 토요일은 마량향에서 즐겁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장성아카데미 '감각주의 예술' 강연

해설가·피아니스트·조향사 출연

장성군은 오는 2일 열리는 '21세기장성아카데미'에서 전시 해설가, 피아니스트, 조향사가 펼치는 감각주의 예술을 이야기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강연은 '감각주의 : 르누아르를 느끼다'를 주제로 펼쳐진다.

전시 해설가 정우철씨와 피아니스트 민시후씨, 조향사 노인호씨가 강단에 선다.

정우철 해설가는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르누아르 그림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민시후씨는 버클리음악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국제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다.

노인호 조향사는 향수 브랜드 '그레디 더 센트'와 향수 전문잡지 '코파르팡'의 대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야기와 음악, 향기로 르



왼쪽부터 노인호·정우철·민시후.

누아르 작품을 감상하는 새롭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21세기장성아카데미'는 첫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4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입장할 수 있으며, 장성군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정강도 지원한다. 자료 공유를 동의한 강의는 장성군 누리집과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김외중 천관농협 조합장과 농가주부모임 한두레봉사단 회원들이 지역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을 만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천관농협 제공>

장흥 천관농협 지역 어르신 '사랑의 밑반찬' 전달

장흥 천관농협은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정엽)과 최근 지역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을 만들어 전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농가주부모임 한두레봉사단 회원 20여명은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원로 조합원과 각 영농회 경로정에 전달했다.

천관농협과 농가주부모임은 올해 들어 영농회 경로정을 청소하고 이·미용 봉사를 펼쳤다.

김외중 천관농협 조합장은 "지역사회에 함께하고 지역 어르신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벌이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오지마을 찾아가는 이불세탁 차량 운영

화순군은 4대의 세탁기를 갖춘 2.5t '이동 이불세탁 차량'을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화순군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3년 이동세탁차량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동세탁차량을 주문·제작했다.

차량 제작에는 모금회 성금 1억1000만원과 7000만원의 개인 기탁금이 들었다.

지난 29일 화순군청 앞 광장에서는 구북규 화순군수, 김동국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양동만 화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불세탁차량 전달식을 열었다. 앞으로 화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화순군으로부터 운영비를 받아 이불세탁을 희망하는 마을을 찾아 이동세탁을 제공한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순사평빨래방에 이어 이번에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 안부 살피기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